

환상의 섬 이어도

제주 사람들의 이상향인 이어도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평화로운 낙원이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어도는 고통스런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제주 사람들이 꿈꿨던 환상의 섬이었다.



이어도 | 서귀포시 중문동 2502 ~ 서귀포시 서호동 22-1(약 10.8km)

강정하로 | 서귀포시 강정동 5491-4 ~ 서귀포시 강정동 4548-1(약 1.1km)

선반로 | 서귀포시 강정동 352-1 ~ 서귀포시 월평동 73(약 4km)

말질로 | 서귀포시 도순동 272-1 ~ 서귀포시 월평동 686-5(약 4.7km)

강정통물로 | 서귀포시 강정동 4789-1 ~ 서귀포시 강정동 4507-1(약 1.8km)

도순로 | 서귀포시 도순동 883-1 ~ 서귀포시 도순동 257-1(약 0.5km)

용흥로 | 서귀포시 강정동 3311-1 ~ 서귀포시 강정동 3838-1(약 1.8km)

이어도로 | 이어도

제주 사람들의 이상향 이어도를 상징하는 이름인 **이어도로**는 중문동에서 서호동까지 10km에 걸쳐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강정천, 법환동 마을을 지나 태평로와 연결된다.

제주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수평선 근처 어디쯤엔가 있을 것으로 여겼던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의 섬,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였다. 옛날 제주 사람들은 나라에 바칠 진상품을 싣고 망망대해를 향해하다 뜻하지 않는 해류에 휩쓸려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들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바다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이어도로 갔다고 여겼다. 삶에 대한 모든 것이 갖춰진 파라다이스, 그곳은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낙원이었다. 그래서 그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 곳에서나마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지친 영혼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어도는 문학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과 이청준 소설가를 비롯해 많은 작가들이 이어도를 소재로 작품을 남겼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이상향을 꿈꾸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오늘날 제주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환상의 섬,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제주 안에서 자신만의 이어도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제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꿈꾸는 이상향인 이어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어도로가 시작되는 곳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총회, 세계환경장관회의, WHO 서태평양회의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한 곳이다. 제주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문적인 인프라를 앞세워 MICE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면서 제주가 세계적인 MICE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강정천

강정하로 | 강정천과 서건도

강정하로는 이어도로에서 갈라져 나와 강정마을의 변화가 남쪽을 지나는 길이다. 강정동은 강정(江汀)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예로부터 물이 맑은 마을로 명성이 높았다. 마을의 동쪽에 흐르는 강정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과 달리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른다. 그래서 강정에서는 물을 이용해 다른 지역과 달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강정의 또 다른 명소로는 서건도가 있다. 강정마을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서건도는 ‘썩은섬’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평소에는 물에 가로 막혀있는 섬이지만,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모세의 기적처럼 섬까지의 길이 만들어진다. 서건도와 마주 보는 해안가에서는 바다로 흘러나가는 용천수인 너븐물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선반로 | 냇길이소와 소왕물

강정을 가로지르는 선반로는 월드컵로에서 시작되어 악근천과 강정천을 차례로 지나 이어도로와 만난다. 선반로 인근에는 악근천과 강정천의 명소인 냇길이소와 소왕물을 만날 수 있다. 강정천의 냇길이소는 맑은 물을 보여주는 연못이다. 폭포와 암벽, 은어, 깨끗한 물이 네 가지가 길상, 즉 어우러진 좋은 형상이어서 냇길이소라 불렀다고 한다.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과 연못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절벽의 모습이 운치있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큰 비가 내린 후에는 폭포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한다.

악근천의 소왕물은 지넷물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선반로 중에 악근천을 건너는 다리의 이름을 지넷물다리라고 했다. 이 물도 냇길이소 못지 않게 깨끗하다. 옛날 범환동과 강정동 사람들이 이 일대에 모여서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소왕물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말질로/강정통물로 | 말길과 통물

말질로는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시작하여 강정마을 안을 가로질러 해안가로 이어진다. 이 길은 과거 국영목장인 8소장에서 강정포구까지를 연결하는 길이었다고 한다. 목장이

있었던 중산간 지대에서는 물을 얻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마을까지 말을 몰고 내려와 물을 먹었다. 이때 말들이 이용했던 길을 말길이라 불렀다. ‘질’은 제주어로 길을 뜻한다. 예전에 강정에 살던 고씨는 말을 수백 마리나 기르고 있어서 물을 마시러 왕래하는 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강정통물로는 말길로가 지나는 강정포구에서 시작해 강정마을 안을 지나는 길이다. 이 길은 마을 안에 있는 통물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가 집집마다 설치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생활용수로 이용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강정은 하천에서, 마을에서, 바다에서 많은 물을 만날 수 있다. 제주에 물이 풍부해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강정과 도원, 번내를 꼽았는데, 그 중 강정을 으뜸으로 쳤다고 한다. 그래서 일강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도순로/용흥로 | 도순동과 용흥동

도순로는 도순동 마을의 안길을 말한다. 강정동의 북쪽에는 도순동이 위치하고 있다. 도순동(道順洞)은 예전에 돌생이 또는 돌송이라 불렀다고 한다. 송이는 화산활동을 생긴 작은 돌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이 마을에 송이가 많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마을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도순(道順)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마을은 하원동에 있던 법화사가 큰 세력을 유지했을 때 법화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한 장수가 이 마을에 살면서 아무나 통과시켜주지 않고, 큰 돌을 들고 힘들게 지나야 통과를 시켜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도순로 동쪽으로는 용흥동(龍興洞) 마을 안으로 연결되는 **용흥로**가 지난다. 용흥동은 4·3사건 이후에 재건이 된 마을이다. 이 지역의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4·3사건의 화를 피해 해안가로 내려와 살았다. 용이 옆드려 있는 모습처럼 생겼다는 북룡동산 뒤에 마을을 재건한 후부터 용흥(龍興)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풍수지리상 남쪽과 북쪽이 허하다는 말이 있어서 남쪽에는 만년폭(팽나무)을 북쪽에는 천년송(소나무)을 심었는데 마을의 누군가가 소나무를 잘라 운반하다가 부정 타서 급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